

목포시, 중장비 업자 체불 고통 없앤다

내년부터 모든 관급공사 '중장비 직불제' 시행키로 공사 대금 지급 앞서 장비 임차료 지급 여부 확인

#1 최근 목포시 용해동에서 시행된 17억 규모의 정비사업. 원도급사인 A사는 타지업체로 지역 업체인 B사에 토목공사 하청을 줬다. B사는 지역의 중장비 업자들에게 부대토목 재하청을 내려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중장비 업자들은 장비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겪다 6개월 만에야 겨우 돈을 손에 쥐었다. 그것도 일부 절삭된 금액이었다.

#2 지역의 중장비 업자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 사실상 재하청은 불법이기 때문에 체불해도 항의하거나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공역(06) 포클레인 장비 가진 C씨. 2-3개월 연체는 비밀비재하고 폐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나마 08(공팔) 10(공넌) 등 비교적 큰 장비는 현장에서 그날그날 기름을 넣어주지만 06(공육) 이하 장비는 자신이 기름을 넣어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두 배의 고통을 겪는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 중장비 업자들의 체불로 인한 고통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

기계 장비사용과 관련 장비대금 체불로 인한 민원이 종종 발생해 내년부터 발주되는 모든 관급공사에 일명 '중장비 직불제'를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중장비 직불제의 공식 명칭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확인제'다. 현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제'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관급공사만큼이라도 직불제를 시행해 장비 임차대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 지급 보증제 하에서는 발주부서가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설계에 반영해 도급사가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면 계약 부서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보증서 미발급 시에는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계약부서에서 설계 내역서를 직접 들여다 봐 지급보증 대상 공사여부를 검토하고 발주부서는 장비임차 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이후 임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불합의서나 지급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대금 지급에 앞서 장비 임차료 지급 여부를 확인



목포시가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방지와 지역의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중장비 직불제'를 시행한다.

한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목포시 회계과장은 "계약 부서와 발주 부서간 연계를 통해 감독 공무원과 현장 대리인 일화하여 자가 장비 사용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비대금 체불 방지는 물론 지역 중장비 업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중장비협의회 관계자는 "원도급사는 하도급관리체계 적정성평

가 만점을 위해 평가항목에 포함된 시공 부분의 하도급률은 82%로 맞추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 대여비와 자재비 등 하도급률은 20%대까지 낮추는 저가 하도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다소 낮은 감이 있지만 체불 걱정을 덜게 됐다며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목포시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장비는 9월말 기준 3100여대에 달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의 미래 '맛의 도시' 본격 추진

TF팀 발족 브랜드화 박차

목포시가 '케-문-도-맛(케이블카+문화유산+도시재생+맛의 도시)'을 민선 7기 핵심 화두로 내건 가운데, 맛의 도시 추진을 위해 TF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목포시는 지난 17일 맛의 도시 TF팀 발족과 함께 첫 실무회의를 열고 '맛의 도시 목포' 실현을 위한 기초적 협의를 진행했다. TF팀은 민간 전문가 3명을 포함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목포시는 이달 초 농림식품수산부의 '남도음식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5억원(5대 5매칭)을 지원받게 됐다.

TF팀은 먼저 목포시 관광지, 맛 집, 숙박업소를 총 망라한 기칭 '목포 관광 종합 안내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 종합안내서는 후대에 편리하도록 핸드북 형태로 제작되며 관광지는 물론 한식·중식·횃집 등 분야별 100개소 맛 집을 스토리텔링 해 소개하고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 모든 숙박업소도 수록된다.

그동안 관광 안내지도와 책자 등은 발간돼 왔지만 종합 관광안내서 발간은 이

번이 처음이다.

또 TF팀은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KTX(SRT) 역사에서 '목포의 맛 알리기 현장 설명회'를 분기별로 4회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장 설명회는 홍보 관련 여행작가, 언론, 인센티브 여행사 대표단 등을 초청해 목포시가 선정한 음식 명인과 함께하는 현장 시식회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날 발족식에서 김종식 시장은 "여수 돌계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꽃게는 진도 서망을 중심으로 서남권에서 가장 많이 잡히고 꽃게 요리는 목포가 본고장인데 여수에 빼앗긴 셈"이라며 "잃어버린 목포의 맛과 옛 명성을 되찾아 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시장은 "내년 4월 '목포의 맛 원년의 해 선포식' 이벤트를 갖고 '맛의 도시 목포'를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TF팀을 이끌고 있는 목포시 관광과장은 "목포9미 등 목포가 가진 맛의 경쟁력을 높이고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 방안을 강구하는 게 TF팀의 활동 목표"라며 "우선 기반 구축에 힘쓰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하나씩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전남여성 일자리 박람회

내일 목포 실내체육관서

212개 기업 참여 200명 채용

전남 서남권의 여성 구직자들과 구인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2018 전남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23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경력을 갖춘 적합한 인재 채용을 위해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한 박람회에는 목포를 비롯해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등 전남 서남권 9개 시·군에서 구직자 17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박람회에는 현장 참여 30개 업체 등 총 212개 기업이 참여해 최소 20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박람회장에는 인재채용관, 컨설팅관, 창업체험관, 4차산업관 등도 운영된다. 창업체험관 코너에서는 전남여성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창업 전시가 이뤄지고 4차 산업관에서는 4차 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직접 체험해보는 코너도 마련된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 문화재 야행 2차 행사 26·27일 개최 근대역사관 일원서

버스킹·전시·체험행사 다채

목포 근대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축제로써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목포 문화재 야행' 2차 행사가 오는 26·27일 양일간 근대역사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낭만항구 목포로 떠나는 밤거리 문화축제'를 테마로 열리는 이번 야행은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밤에 걷는 거리, 밤에 듣는 역사이야기,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등 총 8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야행은 1차 때와 달리 무대 공연이 아닌 소규모 버스킹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시대를 만나다! 코스튬 목포' 프로그램을 사색해 일본순사나 기모노 대신 광복군, 의병 등 의상 대여소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된 왜색 논란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공연은 시립예술단 공연을 비롯해 근대문화 예술의 바람, 어린이 인형극, 버블쇼, 얼른수레 길거리 미술공연, 외교구락부(DJ 공연), 하모니카와 통기타의 어울



목포 문화재 야행 2차 행사가 펼쳐질 목포근대역사관 2관 앞 메인거리. 지난달 열린 1차 문화재 야행 행사 모습.

림, 낭만항구 버스킹, 거리의 피아노 등 총 10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야(夜)한 위킹스트리트, 음악과 함께 하는 그림 전, 목포의 영광 포토 존, 타임슬립 21, 미디어 맵핑, 예향 목포 라이트페널 사진전, 15분의 미학- 독립영화 상영 등 7개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문화재 팝업카드 만들기, 목화아트상품 만들기 체험, 샌드 아트 체험,

전통놀이 체험, 근대목포 1층 3백 체험, 육단이 물지게 체험, 소원 등-머그컵-티셔츠 만들기 등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목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원도심에 산재된 근대 문화유산의 야간 향유는 물론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교육청, 중학생 대상 '한국의 얼 찾아 떠나는 역사탐방'



"역사를 만나 미래를 열다."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집)은 최근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얼을 찾아 떠나는 역사 탐방'을 실시했다. <사진>

'역사를 만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체험활동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고 청소년 스스로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의지와 태도를 기르기 위해 실시됐다.

탐방활동은 대한민국 독립역사와 백제 역사를 알기 위해 역사전문해설사와 함께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기념관, 국립공주박물관과 무령왕릉 기념관을 둘러보고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1박 2일간 진행됐다.

학생들은 국립공주박물관과 무령왕릉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1500년 전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백제의 작은 유물에 스며

있는 백성과의 소통하는 마음, 애국심과 충성심, 창의력을 보면서 백제의 정신과 얼을 일깨웠다.

특히 1919년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찾아간 독립기념관과 유관순열사 생가 등을 돌아보면서 독립 운동가들의 숨결을 느껴보고, 3·1운동의 의미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겨레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는 역사를 통해 지혜를 키우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탐방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고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가 노력하여 후손들에게 남겨줄 훌륭한 역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탐방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